한국 근대 불교계의 민족인식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1. 머리말
2. 불교계의 민족인식 형성 과정
   1) 수용기(1877 ~ 1905)
   2) 형성기(1905 ~ 1912)
3.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에 나타난 민족인식
4.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5. 맺음말

요약문

이 논문은 근대 불교계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수용기의 특징은 서구 문물과 일본 불교계에서 파견된 포교사들로부터 또는 개화승들의 일본 방문을 통하여 민족을 자각하여 가는 시기지만 뚜렷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형성기는 일본 불교계의 위장된 친절과 단계적이고 교묘한 침략 정책에 불교계가 회유되는 모습이 나타기도 하지만 민족인식이 성숙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임제종 설립운동과 같은 불교계 내부에서 일종의 민족운동이 일어난 사실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계의 민족의식은 3 · 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거치면서 선명한 모습으로 발현된다. 1919년 상해에서 발행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한용운은 옥중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명논설을 집필한다. 이 논설에는 일본의 침략 행위는 도의와 정의에 위반된다 점을 지적하였다. 조선이 독립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그것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민족이란 말은 세계평화라는 단어 앞에는 무력해진다. 다만 개별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결국 민족주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주제어

민족인식, 사찰령,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3 · 1운동,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1. 머리말

역사학계에서 근대라는 말은 대체로 봉건사회의 근간인 신분제가 해체되고 농업경제 체제로부터 산업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강압에 의해 문호를 개방한 우리의 근대는 반외세 · 반봉건으로 대변된다. 1894년 봉건사회의 모순으로 인하여 폭발된 동학농민전쟁은 반외세 · 반봉건을 기치로 내걸었다. 1894년 농민전쟁은 조선사회로 하여금 외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내부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단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1] 그런 까닭에 역사학계에서 근대의 기점은 동학농민 전쟁 발발의 계기를 제공한 개항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근대사회 최대의 과제는 부국강병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제는 외세의 침략으로 좌절되고 말았다.[2] 민족의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체로 공통의 언어, 혈통을 가지고 일정한 거주 범위를 가지며 경제생활과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으로 본다.[3] 인간은 제 고장의 특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우월성을 쉽사리 믿어 버린다. 이러한 정의는 민족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민족을 규정하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민족은 살아있는 힘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동하는 것이며, 결코 고정되어있지 않다.[4] 민족이란 용어는 Nation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 한자로 번역하여 '민족' · '국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1890년대 중반 갑오개혁 시기에 이르러 조선에 전해졌다고 한다. 계몽운동기 지식인들이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교과서와 신문 · 학회지 · 잡지 등에서 '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5] 민족이 단결하여 독자성을 수호하고 내 것을 아끼고, 확장시키려는 이념을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근대 서구 문물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에 대한 저항이라

1) 이영호, 「1894년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혁주체의 성장」, 『1894년 농민전쟁연구』1(서울:역사비평사, 1994).

2) 서중석, 「한국에서 민족문제와 국가」,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서울:지식산업사, 1995), 111-117쪽.

3) 김혜승, 『한국 민족주의』(서울:비봉출판사, 1997), 12~15쪽.

4)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창작과비평사, 1981), 19-29쪽.

5) 김소령, 「한말 계몽운동기 教科書 속의 '國民' 인식」, 『대동문화연구』 제63집(서울:대동문화연구원, 2008. 9), 266-269쪽.

는 의미가 담겨있다. 민족주의는 소속 집단의 부강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이므로 제국주의는 민족주의가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감소되어야 한다[6]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진다.

불교와 민족주의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교리로만 해석한다면 아니라고 본다. 불교는 圓融無碍[7]와 諸法無我[8]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종교이다. 민족주의는 우리와 타자를 구별하며,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타자의 간섭을 배제한다. 그렇다면 불교계의 민족인식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할 것인가. 불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교리적으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 앞에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불교계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는 몇 편의 논문[9]을 들 수 있으며, 2006년『불교평론』에서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근대 불교계의 민족운동에 관한 논저[10]들은 상당수 배출되었지만 민족주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다.

근대 불교계의 민족주의의 개념 형성과 성격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광식은『조선불교유신론』에 나타난 한용운의 민족의식을 검토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용운이 당시 사회에서 승려 결혼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승려들이 결혼을 통하여 국가정신의 고양과 민족주의 진흥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용운은 나라가 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일제의 통치자에게 승려 결혼의 자유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들어 1910년 9월까지는 한용운의 민족의식이 투철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고 하였다.[11]

최연식은 불교가 민족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주의적인 사상이라고 여기면서 불교가 민족주의적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민족주의

6) 허우성,「내셔널리즘의 감소를 위한 조건」, 일본사상사학회,『일본사상』제13호(서울: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7. 12), 44쪽.
7) 圓融無碍 :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스러우며 완전히 일제가 되어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불교학대사전』, 서울:弘法院, 1991), 1163쪽.
8) 諸法無我 : 萬有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다운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것(『불교학대사전』, 서울:弘法院, 1991), 1416쪽.
9) 이성택,「민족주의와 원불교사상」『원불교사상』12집(익산:원불교사상연구원 1988. 12).
김광식,「한용운의 민족의식과 '조선불교유신론」,『한국민족운동사연구』35(서울: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6).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도피안사, 2007. 11).
최연식,「특집 프롤로그」,『불교평론』28 · 29(서울:현대불교신문사, 2006, 12).
박노자,「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불교」『불교평론』28 · 29(서울:현대불교신문사, 2006, 12).
서재영,「민족불교와 불교적 보편주의」,『불교평론』28 · 29,=(서울:현대불교신문사, 2006, 12).
10) 대표적인 논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계현,「3 · 1운동과 불교계」(서울:동아일보사, 1969).
정광호,『한일불교관계사연구』(인천:인하대출판부, 1994. 3).
--------,『일본 침략시기의 한 · 일 불교관계사』(서울:아름다운 세상, 2001. 3).
김상현,「3 · 1운동에서 한용운의 역할」,『동국사학』제19 · 20합집(서울:동국사학회 1991).
김창수,「일제하 불교계의 항일민족운동」, 가산 이지관스님 회갑기념논총『한국불교문화사상사』하권(서울:가산이지관스님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1).
김소진,「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불교계의 독립운동」,『원우논총』(서울: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 1995).
김순석.『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서울:경인문화사, 2003. 12).
김광식,『한국근대불교사연구(서울:민족사, 1996. 8).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서울:민족사, 1998. 11).
--------,『근현대불교의 재조명』(서울:민족사, 2000. 10).
--------,『새불교운동의 전개』(안성:도피안사, 2002. 5).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도피안사, 2007. 1).
11) 김광식, 위의 논문,「한용운의 민족의식과 '조선불교유신론」.

적인 것이 되어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불교와 민족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관계 맺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불교계가 민족주의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무엇이었으며,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또 외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12]

박노자는 불교를 緣起와 空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적 주체의 존립이 불가능한 보편주의적 가르침이라고 전제하고, 불교가 민족주의를 수용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는 한국 불교가 근대적 민족 · 국민주의의 정신적 지주가 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근대적인 전개를 실패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원인은 한국 불교는 일찌감치 일본 불교에 포섭된 데 있다고 한다.[13]

서재영은 가해자의 민족주의와 피해자의 민족주의는 다르다고 한다. 민족불교는 외적의 침탈에 맞서 도탄에 빠진 민중들을 구하고자 했던 자비정신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불교의 본질 내지는 전부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14] 이러한 평가는 원론적으로는 옳다고 보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문제에 부딪칠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식민 모국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민족에게 식민지 시기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독립전쟁

12) 최연식, 위의 논문, 「특집 프롤로그」, 9-10쪽.
13) 박노자, 위의 논문,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불교」.
14) 서재영, 위의 논문, 「민족불교와 불교적 보편주의」.

기였다고 한다면 전시상황과 평화시기의 법률 적용은 달라야 한다.

김종만은 호국불교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전쟁 상황에서 '죽음'과 '살인'을 합법적으로 강요하는 본질적인 살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假裝된 합법에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종교계가 합세하고 나선다면 전쟁은 더 비참해지고 피해는 확산된다는 사실을 동서양의 전쟁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15] 지금 당장 중생들이 외부의 흉폭한 침략자들에게 총검으로 살상되고 짓밟히고 있는데 살생을 금하는 불교라고 해서 방관할 것인가. 중생 구제의 원력을 세운 보살들은 파사현정의 의지로 중생을 섭수하고 삿된 무리들을 절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16] 전시상황에서 민족불교의 성격이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살생을 금하는 교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교와 민족문제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불교계에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제 형성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되었을까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 시기는 개항 직후부터 1919년까지로 하였다. 검토 대상 시기의 하한을 1919년으로 설정한 까닭은 이 시기에 오면 불교계의 민족의식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1919년 이후에도 불교계의 민족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만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계의 민족운동이 아니고 민족의식이 언제 형성되었으며

15) 김종만, 위의 논문, 193쪽.
16) 김종만,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불교평론』 제2권 제2호(서울:불교평론사, 2000. 여름), 197쪽.

그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교계의 민족인식 형성을 2기로 나누어 검토하고 민족의식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3·1운동기에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한용운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세계평화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시기 구분은 수용기(1877 ~ 1904), 형성기(1905 ~ 1912)로 설정하였다. 형성기를 1912년까지로 잡은 것은 태동하고 있던 불교계의 민족의식을 결집하는 계기가 된 임제종 설립운동 결과로 탄생한 임제종이 1912년 6월에 해산되기 때문이다. 수용기는 불교계가 개항을 맞이하여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됨에 따라서 서구 문물을 동경하는 시기이다. 일본 불교 종파의 포교사들과 개화승들의 渡日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접하는 때이다. 형성기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사회가 일본의 위협을 절박하게 느끼게 됨으로써 민족의식이 성숙되는 시기이다.

1910년 말부터 시작된 임제종 설립운동과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불교계의 민족인식은 3·1운동이라는 최대의 항일운동을 겪게 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난다. 1919년 11월 중국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불교계의 12명의 중견·원로급 승려들이 불교계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민족인식이 어떠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무엇보다도 같은 해 7월 한용운이 옥중에서 집필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업이 근대 불교계의 민족의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였는가와 그것이 불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 불교계의 민족인식 형성 과정

1) 수용기(1877 ~ 1905)

근대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는 서구와 접촉이 시작되던 18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시작하여 국권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서구의 Nation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을 당시 지식인들이 신문·학회지 그리고 의병의 격문류와 같은 인쇄 매체를 통하여 전파시켰다.[17] 한말 지식인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교과서와 각종 저술을 통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민족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 시기 사회공론과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독립협회였다. 독립협회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치·사회적 현안 문제들 뿐만 아니라 충군애국 정신을 넘어서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8] '민족'과 '국민'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등장한다. 갑오개혁은 신분제를 타파하고 근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평등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화이론적 사고를 일소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단행되

17) 김소령, 앞의 논문, 265-266쪽.
18)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서울:혜안, 2001), 55-56쪽.

었다.[19] 1895년에 발표된 「한성사범학교관제」에 "尊王愛國의 志氣에 富함은 敎員者의 중요한 바라. 故로 學員으로 하야곰 평소에 忠孝의 大義에 明하며 國民의 志操를 振起함을 요함"[20]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여기에 사용된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민주권 국가로서 시민적 권리를 가지는 국민이 아닌 황제의 피지배자로서의 성격을 지닌 '臣民的 국민'이라는 뜻이다. 시민의 권리를 가지는 '국민'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민족'은 러일전쟁 이후에 사용되었다고 한다.[21]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불교계의 민족인식은 일본을 드나들던 李東仁과 卓廷埴 같은 개화승들이 먼저 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朝鮮國布敎日誌』[22]와 『朝鮮開敎五十年誌』[23]에 나타나는 편린들을 살펴보면 개화승들은 일본 불교와 교단의 관리체계를 발달된 선진 문화로 이해하고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항 직후인 1877년 일본 淨土 眞宗 大谷派 東本願寺에서는 조선에 포교사를 파견하였다.[24] 동본원사의 포교사인 오꾸무라 엔싱(奧村圓心)은 『조선국포교일지』에서 "국가와 불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력한다"[25]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강한 민족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포교에 임하는 일본 포교사들의 설교에 일본 사찰의 별원이나 포교소를 출입하던 조선의 승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불교에 호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조선개교오십년지』에는 일본 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개항장과 인근 지역에 소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하고 조선 어린이들에게 근대 교육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실업 교육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養蠶과 차 만드는 법, 채소 재배 등을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빈민구제 사업과 행려병자 구호 사업 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가해자의 민족주의는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선과 봉사를 가장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감사의 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동인이 1880년 5월 15일 주일 영국 공사관 2등 서기관 Enerst Satow를 만나서 "한국이 수 년 내에 외국과 관계를 맺을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정부를 전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7]라고 하였다. 그는 전 領議政이었던 李裕元, 弘文館 校理 金玉均, 吏曹判書 趙成夏, 譯官 吳慶錫, 錦陵尉 朴泳孝, 姜瑋, 劉鴻基 등 당시 정계의 주요 인물들의 약력과 성향을 일본 공사인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게 전해주었다.[28] 그는 외교 협상에 있어서 중

19) 김현숙,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서울: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 3), 127쪽.
20) 송병기 외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 「한성사범학교관제」,(서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519-527쪽.
21)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서울:고려사학회, 2001. 3)
22) 「朝鮮國布敎日誌」, 『眞宗史料集成』 제11권, 1975(이 일지는 국민대학교에 재직하였던 조동걸이 입수하여 1985년 『韓國學論叢』 제7집에 수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23) 大谷派本願寺 朝鮮開敎監督部 編(京城:朝鮮開敎五十年誌』, 1927).
24) 김순석, 앞의 책, 23쪽.
25) 앞의 책, 「朝鮮國布敎日誌」, 明治 三十年(1897) 6월 21일자.
26) 앞의 책, 『朝鮮開敎五十年誌』, 148-170쪽.
27) 〈개화승 이동인의 재일 활동〉, 《신동아》(서울:동아일보사, 1981. 5), 241쪽.
28) 이광린, 「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자료」, 『동아연구』 6집(서울: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1985), 476-478쪽.

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상대국 책임자급의 인물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그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주위의 미움을 받아 행방불명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수용기의 특징은 불교계 인사들이 민족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 불교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일본은 조선에 비해 선진국으로 문물이 발달한 나라였다. 선진국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수용하는 방법은 주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당시 불교계 인사들의 반민족적인 행위는 반발을 초래하였고 따라서 모처럼 성립된 종단이 양분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모습은 하루 빨리 개화를 달성하려는 성급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형성기(1905 ~ 1912)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민족의식의 형성은 전환기를 맞이한다. 1905년 이전까지의 신문잡자 · 역사서 등의 출판물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기사 내용은 국권상실의 위기 상황과 시민의식의 성숙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1904년 러일전쟁 이전 시기까지는 '동포'라는 용어와 혼용되다가 러일전쟁 이후에 가면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집단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29] 이러한 경향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동양사회의 새로운 강자로서 일본의 위협을 느끼고 공동운명체로서 한민족을 인식한 듯하다. 『대한매일신보』는 논설을 통하여 '민족'과 '국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였다. 이 논설에 따르면 '민족'은 같은 조상의 자손이며 공통의 종교, 언어, 영토 그리고 공통의 역사 경험을 함께 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민족'은 '국민'의 원형이 될 수는 있지만 '민족'이 곧 '국민'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30]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정치 · 경제 ·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사항을 관할하였다. 통감부는 1906년 11월 17일자로 宗教의 宣布에 관한 規則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일본의 종교 세력이 조선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의 발표로 이른바 管理請願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리청원은 조선의 사찰이 일본 불교 某 종파와 연합 또는 말사 가입을 의미하는 일본식 표현이다.[31] 그 결과 1911년 경에 전국의 사찰 가운데 약 120개 사찰이 관리청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32] 조선의 사찰이 관리청원을 신청한 것은 의병세력들이 근거지를 대부분 산중에 두었기 때문에 사찰이 의병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찰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고 한다.[33] 이러한 사실은 당시 불교계의 민족의식이 희박하였음을 알

29) 백동현, 앞의 논문, 165-166쪽.

30) 〈민족과 국민의 구별〉,《대한매일신보》, 1908. 7. 30.
31) 정광호, 앞의 책, 『한일불교관계사연구』, 89쪽.
32) 대곡파본원사 조선개교감독부 편, 앞의 책, 195-196쪽, 관리청원을 제출하여 통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찰 가운데는 金泉 直指寺 · 鐵原 四神庵 · 博川 深源寺 · 果川 戀主庵 등 많은 사찰이 있었다. 관리청원을 신청하였으나 통감부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사찰로는 陜川 海印寺 · 東萊 梵魚寺 · 求禮 華嚴寺 · 河東 雙溪寺와 같은 거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33) 高橋亨, 『李朝佛教』(京城:寶文館.1929), 919쪽.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이듬해 제령 제7호로 「寺刹令」[34]과 「寺刹令施行規則」[35]을 공포하였다. 「사찰령」은 본사 주지 임면과 사찰 재산 매각할 때는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불교계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한 불교계의 숨통을 죄는 악법이었다. 이 사찰령이 발표되자 불교계는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모든 언론이 통제를 받던 상황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찰령을 시행하면서 정무총감이 9월 18일자로 각 도 장관에게 발송한 관통첩(官通牒)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승려들의 저항의식을 찾을 수 있다. 정무총감은 "사찰령이 조선 사찰의 권리를 빼앗아 승려를 박멸하려 한다고 하여 조선 승려로 하여금 의구심을 야기시키는 자도 있다. 사찰령 시행에 장애가 있으면 이는 조선의 승려들이 이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각 사찰에 머무는 승려들에게 사찰령 시행의 취지를 잘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찰령이 조선 승려를 박멸하려 한다'라는 말이 유포될 정도로 불교계 내부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찰령 시행을 반대하는 글이 활자로 출간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당시의 자세한 정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한용운이 30본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조선불교회를 창립하고자 하였다[36]는 대목에서 사찰령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데서 민족의식이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사찰령은 불교계의 반감을 사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찬양[37]하고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38]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하여 조선총독부에서 불교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시행된 사찰령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아직 민족의식이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사찰령철폐운동은 1919년 이후부터 조선불교유신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39]된다.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는 「사찰령」이 불교계를 枯死시키는 악법이라고 규탄하였다. 임시정부는 일본

34) 『朝鮮總督府官報』 제227호, 1911. 6. 3, 制令 7호.
「寺刹令」의 내용은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조 사찰의 기지 및 伽藍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傳法·布敎·法要執行 및 僧尼 止住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등의 것으로 사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기타 『朝鮮總督府官報』제 257호, 참조. 사찰령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柳炳德, 「日帝時代의 佛敎」,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이리:원광대학교출판부, 1975).
鄭珖鎬, 「日帝의 宗敎政策과 植民地 佛敎」, 『한국사학』3(성남:정신문화연구원, 1980).
徐景洙, 「日帝의 佛敎政策」, 『佛敎學報』19(서울:불교학회, 1982).
韓奭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敎政策』(東京:未來社, 1988).
金光植, 「1910년대 불교계의 進化論 수용과 寺刹令」, 『韓國近代佛敎史硏究』(서울:민족사, 1996).
金淳碩 , 「朝鮮總督府의 「寺刹令」 공포와 30본사 체제의 성립」, 『한국사상사학』 제18집(서울:한국사상사학회, 2002. 6).
韓東昊,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12.
35) 『朝鮮總督府官報』, 제257호, 1911. 7. 8.

36) 〈佛敎會의 歸寂〉,《매일신보》, 1914. 8. 15.
37) 사찰령을 찬양한 대표적인 논설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최치허,〈法類兄弟의게 顒祝홈〉,《朝鮮佛敎月報》제1호(京城,:朝鮮佛敎月報社 1912. 2), 38-39쪽.
김지순,〈성은으로 寺法認可〉,《朝鮮佛敎月報》제10호(京城,:朝鮮佛敎月報社 1912. 11), 2-4쪽.
38) 한동민, 『'寺刹令'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67-71쪽.
39) 김광식, 「조선불교청년회의 史的 고찰」, 『韓國近代佛敎史硏究』(서울:민족사, 1996).

의 조선통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국제연맹에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었다.[40] 이 보고서에는 「사찰령」에 대한 인식이 네 가지로 나타나 있다. 첫째 사찰 신축의 不許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소멸하는 것을 대신할 새로운 것의 계승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物種은 사라진다. 사찰령이 시행된 이후 9년 동안 폐지된 사찰은 50개가 넘지만 새로 지어진 사찰은 하나도 없다." 둘째 사찰의 재산처분을 총독부가 허가하는 것은 寺有財産을 승려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官有財産化 만들어 버렸다는 것, 셋째 사찰령시행규칙이 30본사를 分定함으로써 조선승려로 하여금 단결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 넷째 사찰 주지 선출이 종래의 산중공의제를 무시하고 일본식 주지 선출방식인 師資相承·法類相續·招待繼席의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승려들의 불평이 그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41] 임시정부는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이 폐지되지 않으면 불교계의 불만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데서 불교계의 민족의식을 대변하였다.[42]

이렇듯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민족의식이 투철하였지만 정작 불교계의 민족의식이 박약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10년에 근대에 최초로 성립한 圓宗의 종정 이회광에 의해서 자행된 조일불교 연합책동에서 찾아진다. 이회광은 일본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의 사주를 받아 전국 72개 사찰의 위임장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 1910년 10월 7일 일본 조동종과 聯合盟約 7개조를 성립시켰다.[43] 다케다 한시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관련되어 히로시마(廣島)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무죄로 방면 되어 이후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원종과 일본 조동종을 연합시키려고 이회광을 배후에서 움직인 인물이다.[44] 연합맹약은 말이 연합이지 조선불교 원종을 일본 조동종에 부속시킨데 지나지 않았다. 이 매종책동이 1910년 12월경 불교계에 알려지게 되자[45] 이 소식을 들은 韓龍雲·朴漢永·陳震應 등이 중심이 되어 이회광의 매종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각 사찰에 通文을 돌려 1911년 1월 15일 松廣寺에서 승려대회를 열어 臨濟宗을 탄생시켰다.[46] 이회광은 해인사 주지로서 불교계의 신망을 받는 강백이었다.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는 조선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불교를 배워야 하며, 일본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 불교 종파와 연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다.[47] 불교계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의 민족인식은 이러하였다.

이 시기 불교계는 이회광의 조일불교 연합책동이라는 반민족적

40) 李光洙 編, 國際聯盟提出『朝日關係史料集』(서울:高大圖書館 影印本, 1982).
이 보고서는 후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1919년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하여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종래 韓國에 관한 보도 자료가 거의 일본 측에서 나왔으므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많았다. 간혹 서양인의 기록 가운데 공평한 기록이 있으나 韓人의 눈으로 보면 부정확하고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국제연맹에 호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책자는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고대로부터 丙子修護條約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이다. 제2부는 병자수호조약으로부터 '庚戌國恥'까지 한일관계이다. 제3부는 '경술국치'부터 1919년 2월까지 일본의 對韓政策이다. 제4부는 3·1운동 이후의 情形이다.

41) 李光洙 編, 앞의 책, 323-332쪽.

42) 위와 같음.

43) 李能和,『朝鮮佛教通史』상권,(京城:寶蓮閣, 1982, 하권), 938쪽.

44) 韓晳曦,『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東京:未來社, 1988), 59-65쪽.

45) 高橋亨, 앞의 책,『李朝佛教』, 925쪽.

46)〈佛教改宗問題(五)〉'先何心後何心',《東亞日報》, 1920. 6. 28.

47)〈佛教改宗問題(二)〉,《東亞日報》, 1920. 6. 25.

인 사건을 겪으면서 민족의식이 태동하는 임제종 설립운동이 일어난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불교의 전통을 져버리고 일본 불교의 발달된 모습에 현혹되어 자행된 이회광의 매종책동은 몰지각한 처사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 매종책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규합된 임제종 설립운동은 불교계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민족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합맹약의 내용이 조선 사찰의 관리권과 포교권, 재산권을 모두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다.[48] 임제종 설립운동의 주역들은 1911년 1월 6일 광주 瑞石山 아래 있는 증심사에서 회합을 가지고 臨濟宗門을 확장하고 信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신세계 종교인의 의무라고 선언하였다.[49] 이러한 사실은 임제종 설립운동을 이회광의 조일불교 연합책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자주적인 종단 설립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민족의식을 엿 볼 수 있다. 이회광의 반민족적 행위에 맞서 임제종 설립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한용운은 1910년 여름부터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 가운데 민족주의적인 면모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 가령 「佛教의 主義」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볼 수 있다.

> 근세의 자유주의와 세계주의가 사실은 평등한 이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의 법칙을 논하는 말에 '자유란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써 한계를 삼는다'고 한 것이 있다. 사람은 각자 자유를 보유하여 남의 자유를 침범치 않는다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동일하고, 저 사람의 자유가 이 사람의 자유와 동일해서 각자의 자유가 모두 수평처럼 될 것이며, 이리하여 각자의 자유에 사소한 차이도 없고 보면 평등의 이상이 이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50]

자유와 세계주의를 논한 이러한 논조는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세계 평화는 개별 민족의 독자성을 담보로 할 때 가능하다. 세계평화는 인간의 자유를 밑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용운은 이 시기에 분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용운은 또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사상의 자유가 어찌 사소한 章句의 訓詁와 남과 나의 사견에 그치겠는가. 이는 학계의 사상적 자유가 승려의 그것만 못하고, 사상의 부자유가 또한 승려만한 것이 없는 것인 所以이다. … 사상이 일단 부자유에 빠지고 보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박학이라 해도 다 노예 노릇을 잘하는 도구가 많아지는 것뿐이다."[51]라고 하였다. 근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대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또한 민족주의 의식의 맹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한용운이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905년 무렵 梁啓超의 『飮氷室文集』과 徐啓畬의 『瀛環志略』을 읽고, 세계 여행을 떠났던 것에서 찾을 수

48) 한용운, 〈나는 왜 중이 되었나〉, 《삼천리》, 1930. 5(전보삼, 『푸른 산빛을 깨치고』, 서울:민족사, 1992. 20쪽 재인용),
49) 〈佛教一新의 機〉, 《매일신보》, 1911. 2. 2.
50) 한용운 저 · 이원섭 역, 『조선불교유신론』(서울:민족사, 1983), 29-30쪽.
51) 한용운 저 · 이원섭 역, 위의 책, 41쪽.

있다. 그의 세계여행의 꿈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뜻밖의 재난을 만나 좌절된다.[52] 이후 그는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조동종의 총무 히로츠 셋상(弘津說三)과 교류하고 그의 주선으로 조동종 대학에 입학하여 일본어와 불교를 공부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53] 그는 일본 여행에서 돌아와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였다. 이 책에는 1910년대 초반 그의 현실인식이 잘 나타나있다.[54]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불교의 성질을 평등주의와 救世主義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불교의 평등주의를 진리라고 인식하고, 서양의 근대적 사조인 자유주의, 세계주의도 평등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면서 불교는 세계문명에서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55]

그렇다면 이시기 한용운은 민족을 확연하게 인식하였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조선불교유신론』의 탈고 시점은 1910년 12월 8일로 나타나며,[56] 집필한 시기는 1910년 여름이라고 한다.[57] 그런데 『조선불교유신론』에 수록된 승려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중추원헌의서'의 작성 시점이 1910년 3월이고 같은 내

52) 「北大陸의 하룻밤」,『韓龍雲全集』1(서울:불교문화연구원, 2006), 243-250쪽.
한용운은 세계 여행을 꿈을 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갔으나 그곳에 사는 한국 교민들은 조선인 가운 머리를 깍은 사람들은 일진회원으로 간주하여 살해하였다. 한용운은 승려 신분이었으므로 삭발을 한 상태여서 위기를 만났으나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귀국하였다.

53) 박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운동』(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35~36쪽.

54) 김순석, 「한용운의 정교분리론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8집(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2007), 148-149쪽.

55) 김광식,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도피안사, 2007). 11, 73쪽.

56) 한용운 저 · 이원섭 역, 앞의 책, 『조선불교유신론』, 「서문」.

57) 고은, 『한용운평전』(서울:고려원, 2000). 218쪽.

용을 통감부에 건의한 '통감부 건백서'를 제출한 시기는 1910년 9월이다. 임제종 설립운동이 본격화 된 것이 1910년 12월부터라고 하더라도 『조선불교유신론』이 불교서관에서 발행된 것은 1913년 5월 25일이다.[58] 그가 원고를 탈고한 시점부터 출간하기까지 수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불교유신론』에 '통감부 건백서'를 수록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국주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통감부는 조선인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통치기구의 본산이므로 조선인에게는 타도의 대상이지 청원서를 제출할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민족의식이 내적인 심화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본다.[59]

형성기의 특징은 통감부가 일본 불교 세력 확장의 길을 열어준 관리청원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자 관리청원을 신청하고자 한 사찰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계의 민족의식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원종의 종정이었던 이회광이 일본 불교 조동종과 연합을 시도하였던 점 역시 민족의식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회광의 매종책동을 분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임제종 설립운동에서 민족의식의 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계의 민족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보이기도 하지만 승려의 결혼 문제를 통감부에 건의 한 것으로 보아 제국주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민족주의 개념 형성

58)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京城:불교서관, 1913).

59) 김광식, 앞의 논문, 「한용운의 민족의식과 '조선불교유신론'」, 141-142쪽.

되어 가는 과정이라서 착종되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불교계의 민족의식은 1919년에 가면 확연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3.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에 나타난 민족인식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선언서」라는 제목으로 되어있으며 1919년 11월 15일 상해에서 발표된 불교계의 독립선언서이다. 구성은 국한문 혼용체이며 1,024字의 본문과 大韓民國 元年 11월 15일로 쓰인 날짜와 대한승려연합회 대표자 12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져 있다.[60] 원문이 「선언서」라고 되어있는 까닭에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불교선언서」, 「대한승려연합회독립선언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선언서의 기초자에 대해서는 신상완·이종욱·백초월로 주장하는 견해[61]가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의 요지는 대강 이러하다. '평등과 자비는 불법의 宗旨이니 이것이 위반되는 것은 불법의 적이다. 일본은 불법을 숭상한다고 하면서 자주 명분없는 군대를 일으켜 인류 평화를 교란하며 불교를 전해준 나라를 침략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여러 祖師와 불교도가 몸을 바쳐 국가를 수호하였다. 일본은 강포한 수단으로 한국의 역사와 민족적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고 억압정책으로 全滅시키려 하고 있다. 불교도들은 가혹한 법령의 속박 아래 자유를 잃고 絶滅의 참경에 빠졌다. 이에 광복의 大願을 성취할 때까지 혈전을 선언한다.'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불교의 교리로 보면 있어서는 안될 살상을 자행하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평등과 자비는 불법의 宗旨이니 … 血戰할 뿐인져'라는 표현은 일본의 침략이 불법이 추구하는 세계와 상충되지만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이기에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선언서의 끝부분은 불교에서 금하고 있는 살생마저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남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도한 침략자는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광식은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를 불교가 일제에 항쟁하는 원칙과 당위성을 명쾌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62] 그는 이 선언서에 나타난 민족불교 이념을 일제하 불교

60) 김소진, 『한국독립선언서연구』(서울:국학자료원, 1999), 274쪽.

61)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의 기초자로 김소진은 신상완, 김창수와 박희승은 이종욱, 김순석와 김광식은 백초월로 보고 있다. 김순석은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의 기초자를 백초월로 추정하였는 데 그 근거로 당시 정황을 기록한 자료에 백초월은 신상완·이종욱보다 연배가 높고, 중앙학림의 강사로 위촉된 점, 일본 경찰의 검거와 취조 기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광식도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이라는 논문에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의 기초자로 백초월로 추정하였다. 그는 당시 백초월이 머물렀던 영원사의 현재 주지인 김대일이 일제시대 동 사찰의 주지였던 서병제가 당시 사무·초안·글씨 등은 마땅히 할 인물이 없어 백초월이 담당하였다는 증언을 토대로 백초월로 판단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보다 분명한 증언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소진, 위의 책, 김창수,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민족운동」, 가산 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하권, 1992, 김순석, 「불교계의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서울: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1. 12), 박희승,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와 이종욱의 항일운동」, 『대각사상』 제5집(서울:대각사상연구원, 2002. 11),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도피안사, 2007. 11).

62) 김광식,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도피안사, 2007. 11), 57-58쪽.

독립운동의 사상적 정수라 보고 민족불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민족불교는 첫째, 민족공동체 구성원이 믿고 수행하는 불교이며, 둘째, 국가 및 민족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중생, 민중, 대중)의 모순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종교이며, 셋째, 그 지향이 불교적 가치, 이념, 사상, 교리에서 부합되는 것을 핵심 요체로 본다"[63]고 하였다. 이러한 민족불교의 정의는 승려와 불교도들이 같은 민족으로 동일한 영토 안에 거주한다는 차원에서만 보고, 또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에 나타난 문구만으로 해석한다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종교이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김광식이 정의한 '민족불교의 지향이 불교적 가치, 이념, 사상, 교리에서 부합되는 것'이라는 부분은 타당성을 가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 정의는 살생을 부정하고, 모든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자타의 구별을 부정하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이라는 개념과 불교 사상은 일치할 수 없는 모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4.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1910년 국권을 상실하고 나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제한적이며, 분산적으로 진행되었고, 지하로 숨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국권을 강탈당한 상황에서 운동체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반면에 한

63) 김광식, 위의 논문, 71쪽.

말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복벽주의 운동은 종언을 고하고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던 공화주의론이 독립운동의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64] 군주제가 봉건시대의 국체였다면 공화제는 근대의 국체라고 할 수 있다. 공화제는 군주제에 비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독자성이 중시되는 체제이다. 독립운동에서 추구하는 것이 민족의 독립이라면 민족주의는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념 가운데 하나이다. 일제시기를 통하여 민족인식이 최고조로 고양된 시기는 1919년 3·1운동 시기이다.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民族·異民族·文化民族·兩民族 등의 단어와 민족적이라는 관형어를 포함해서 총 13회가 나온다.[65] 3·1운동 단계에 가면 '민족'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민족운동에 가담하였던 승려는 백용성과 한용운이다. 백용성은 1910년부터 시작된 임제종이 설립되는 데 관여하였던 승려로 1912년 경성에서 임제종 포교당이 개교될 때 開敎師長으로 활약하였다.[66]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까닭을 묻는 신문조서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한용운이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금번 구주 전쟁의 결과 파리 강화회의에서 각국은 독립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명일 내로 선언을 하려고 하니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므로 그런 일이면 마땅히 찬성한다고 하였다. … 어느 때

64) 윤경로, 「1910년대 독립운동의 방략과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사전』 총론편(천안: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259-261쪽.
65) 「기미독립선언서」, 독립기념관소장자료, 자료번호 자-431.
66) 〈포교당의 성황〉,《매일신보》, 1912. 5. 28.

든지 통지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가기로 약정하고 한용운은 돌아갔다"[67]라고 하였다. 그는 조선독립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지를 묻지 않고 찾아가겠다고 말함으로써 조선독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투철한 민족의식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옥중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각자 자신의 종교 서적을 구하여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두 한글 경전이었다는 것이다. 불경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출옥 이후 역경사업에 진력하여 『금강경』·『능엄경』·『원각경』·『화엄경』 등 무려 30여 종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그의 이러한 번역 작업은 민족의식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68]

백용성과 함께 불교계의 대표로 33인 대열에 참여하였던 한용운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날인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다는 죄목으로 1919년 10월 실형을 선고 받고 1921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영어의 몸이 된다.[69] 1919년 7월 10일 한용운은 옥중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장의 요구로 아무런 참고자료도 없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을 작성하였다.[70] 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은

67) 이병헌 편저, 『3·1운동비사』(서울: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138쪽.
68)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제5집(서울:대각사상연구회, 2002).
69) 김광식, 「첫키스로 만해를 만난다」(서울:장승, 2004), 123-129쪽.
70)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은 「조선독립의 서」, 「조선독립의 이유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대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기서는 한용운이 공판 때 밝힌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으로 쓰기로 한다. 이 부분을 다룬 논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박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운동』(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고명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개요'에 나타난 만해의 독립사상」, 『불교평론』 제3권 제3호(서울:불교시대사, 2001. 가을), 김광식, 『첫키스로 만해를 만난다」(서울:장승, 2004).

1919년 11월 4일자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게재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71] 그동안 학계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을 불교 사회주의로 평가하기도 하였고, 민족주의의 발현 또는 민족자존론 등으로 이해하여 왔다. 이 글은 당시 사상계의 흐름과 한용운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 그 핵심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불교 사회주의 사상[72]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한용운의 자유·평화·평등의 정신이 녹아있는 민족주의에 바탕한 독립사상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다.[73] 나아가서 이 글은 3·1운동 이후 일부 민족주의 진영에서 제기하였던 타협론을 질타하고 인류역사는 문명과 평화를 향해 진보한다는 진보사관과 민중사관의 표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74]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민족주의의 발현 또는 독립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행간을 자세히 읽어 보자면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터럭처럼 여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달게 받는 것이다."[75] 한용운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하였다. 그만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자유와 평화를 유린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

71) 《독립신문》, 1919. 11. 4.
72) 안병직, 「만해 한용운의 독립사상」 『창작과 비평』 제5호(서울:창작과비평사 1970. 12).
73) 김광식, 앞의 책, 「첫키스로 만해를 만난다」, 118~121쪽.
74) 고명수, 앞의 논문, 142~143쪽.
75) 「조선독립의 서」, 『한용운전집』1(서울:불교문화연구원, 2006), 346쪽.

한 논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른바 강대국 즉 침략국은 군함과 총포만 많으면 스스로의 야심과 욕망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짓밟는 쟁탈을 행한다."[76] 이 말은 도의와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도의와 정의라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민족의 독립자결은 자존성의 본능이요, 세계의 대세이며, 하늘이 찬동하는 바로서 전인류의 앞날에 올 행복의 근원이다. 누가 이를 억제하고 누가 이를 막을 것인가"[77] 조선이 독립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누구도 저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늘의 뜻이 어찌 조선의 독립만 정당하다고 하겠는가. 하늘은 온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권리는 누구도 침탈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상은 불교의 자유와 평등 사상과 맞닿아 있으며, 승려인 그가 평소 읽고 실천하고자 한 불교 사상의 핵심이다. 필자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을 민족주의와 독립사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승려로서 한용운 사상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한용운은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에 맞서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약육강식·우승열패라는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절대 독립을 주장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 서고자 하였다. 그는 시인·문학가·독립운동가 등으로 평가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와 너의 구분을 넘어서는 제행무상과 제법무아를 체득한 승려였으며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하였다.

76) 위와 같음.
77) 위의 책, 348쪽.

5. 맺음말

이상에서 근대 불교계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민족인식의 수용기는 서구 문물과 일본 불교계에서 파견된 포교사들로부터 또는 개화승들의 일본 방문을 통하여 민족을 자각하여 가는 시기지만 뚜렷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형성기에는 일본 불교계의 위장된 친절과 단계적이고 교묘한 침략 정책에 불교계가 회유되는 모습이 나타기도 하지만 민족인식이 성숙되어가는 시기이다. 조선 사찰이 자발적으로 관리청원을 신청하였다든가, 원종의 종정이 전국 사찰의 주지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일본 불교 조동종과 연합맹약을 체결한 것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임제종 설립운동과 같은 불교계 내부에서 일종의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사실에서 민족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에는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그가 승려의 결혼문제를 식민통치의 본산이 통감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의 민족의식이 투철하지 못하였음을 말해 준다. 1911년 「사찰령」이 시행되자 불교계는 이 법이 불교계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총독부 권력에 예속시키려한다는 것을 알고 저항한 승려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법을 찬양하는 승려들이 저항하는 승려들 보다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계가 식민통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한계를 노정시켰다. 이러한 한계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거치면서 극복된다.

3·1운동 시기에 가면 불교계의 민족의식은 선명한 모습으로 나

타난다. 1919년 상해에서 발행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 선언서는 평등과 자비는 불법의 종지인데 불법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수탈을 일삼는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서 불법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혈전을 선언하였다. 불교계의 이러한 혈전 선포는 불법에 어긋나지만 만인의 자유가 곧 세계평화의 근간이라는 의식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당시 백용성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옥 후에 많은 불경 한글로 번역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민족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백용성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다는 죄목으로 투옥된 한용운은 옥중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명논설을 집필한다. 이 논설에는 일본의 침략 행위는 도의와 정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선이 독립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그것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는 시인이요,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로 불리지만 그의 신분은 승려였다. 그가 승려였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라는 차원 높은 이상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그의 사상과 주장은 인재의 부재로 허덕이던 당시 불교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불교계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민족의식 수용과 형성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한용운이 불교사상에 기반한 민족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평화를 주장함으로써 불교계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 주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남은 본래 없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體認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이란 말은 세계평화라는 단어 앞에는 무력해진다. 다만 개별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결국 민족주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단초는 한용운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에서 찾아진다. 종래 학자들은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을 민족주의 인식의 표상으로 주장하여왔다. 한용운의 이 논설은 민족주의를 넘어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면모를 드러낸다. 불교계의 민족주의 인식은 개항 직후 민족이라는 인식이 부재하였던 단계에서 사회전반의 인식 고양에 힘입어 차츰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 와중에서 조선 사찰 관리권을 일본에 양도하는 관리청원과 조일불교 연합책동과 같은 반민족적인 처사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1919년 3·1운동 단계를 지나면서 한용운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을 집필하는 단계에 가면 독립을 주장하되 그 방법으로는 비폭력을 주장하였다. 한용운이 주장한 비폭력을 통한 민족독립의 달성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귀하게 여기는 불교정신에 바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참고 자료

- 「기미독립선언서」
- 《대한매일신보》
- 《매일신보》
- 《독립신문》, 상해판
- 《東亞日報》
- 《삼천리》
- 《朝鮮佛敎月報》
- 송병기 외 편저, 「한성사범학교관제」, 『한말근대법령자료집』1(서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 『朝鮮開敎五十年誌』, 大谷派本願寺 朝鮮開敎監督部 編(京城:朝鮮開敎五十年誌, 1927).
- 「朝鮮國布敎日誌」, 『眞宗史料集成』 제11권, 1975
- 『朝鮮總督府官報』
- 『韓龍雲全集』(서울:불교문화연구원, 2006).

2.참고 논저

-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창작과 비평사, 1981).
- 〈개화승 이동인의 재일 활동〉, 《신동아》(서울:동아일보사, 1981. 5).
- 高橋亨, 『李朝佛敎』(京城:寶文館.1929).
- 고명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개요'에 나타난 만해의 독립사상」, 『불교평론』 제3권 제3호 (서울:불교시대사, 2001. 가을).
- 고 은, 『한용운평전』(서울:고려원, 2000).
-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서울:민족사, 1996. 8).
- 김광식, 「1910년대 불교계의 進化論 수용과 寺刹令」, 『韓國近代佛敎史硏究』(서울:민족사, 1996).
-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서울:민족사, 1998. 11).
-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서울:민족사, 2000. 10).
- 김광식, 『새불교운동의 전개』(안성:도피안사, 2002. 5).
- 김광식, 「한용운의 민족의식과 조선불교유신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서울: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6).
- 김광식, 「첫키스로 만해를 만난다」(서울:장승, 2004).
- 김광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안성:도피안사, 2007. 11).
- 김상현, 「3·1운동에서 한용운의 역할」, 『동국사학』 제19·20합집(서울:동국사학회 1991).
- 김소령, 「한말 계몽운동기 敎科書 속의 '國民' 인식」, 『대동문화연구』 제63집(서울:대동문화연구원, 2008. 9).
- 김소진,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불교계의 독립운동」, 『원우논총』(서울: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총학생회, 1995).
- 김소진, 『한국독립선언서연구』(서울:국학자료원, 1999).
- 김순석 , 「朝鮮總督府의 「寺刹令」 공포와 30본사 체제의 성립」, 『한국사상사학』 제18집(서울:한국사상사학회, 2002. 6).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서울:경인문화사, 2003. 12).

· 김순석,「한용운의 정교분리론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8집(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2007).
· 김창수,「일제하 불교계의 항일민족운동」, 가산 이지관스님 회갑기념논총
· 『한국불교문화사상사』 하권(서울:가산이지관스님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1).
· 김종만,「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불교평론』 제2권 제2호(서울:불교평론사, 2000. 여름)
· 김현숙,「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서울:한국 · 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 3).
· 김혜승,『한국 민족주의』(서울:비봉출판사, 1997).
· 박걸순,『한용운의 생애와 독립운동』(천안: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박노자,「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불교」,『불교평론』28 · 29(서울:현대불교신문사, 2006, 12).
· 백동현,「러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한국사학보』 10(서울:고려사학회, 2000).
· 서경수,「日帝의 佛教政策」,『佛教學報』19(서울:불교학회, 1982).
· 서재영,「민족불교와 불교적 보편주의」,『불교평론』28 · 29(서울:현대불교신문사, 2006, 12).
· 서중석,「한국에서 민족문제와 국가」,『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서울:지식산업사, 1995).
· 안계현,「3 · 1운동과 불교계」(서울:동아일보사, 1969).
· 안병직,「만해 한용운의 독립사상」,『창작과 비평』 제5호(서울:창작과비평사 1970. 12).
· 유병덕,「日帝時代의 佛教」,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韓國佛教思想史』(이리:원광대학교출판부, 1975).
· 윤경로,「1910년대 독립운동의 방략과 특성」,『한국독립운동사사전』 총론편(천안: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 이광린,「개화승 이동인에 관한 새자료」,『동아연구』 6집(서울: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1985).
· 李光洙 編, 國際聯盟提出『朝日關係史料集』(서울:高大圖書館 影印本, 1982).
· 이능화,『朝鮮佛教通史』 상권,(京城 寶蓮閣, 1982).
· 이병헌 편저,『3 · 1운동비사』(서울: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 이성택,「민족주의와 원불교사상」,『원불교사상』 12집(익산:원불교사상연구원 1988. 12).
· 이영호,「1894년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혁주체의 성장」,
· 『1894년 농민전쟁연구』1(서울:역사비평사, 1994).
· 장규식,『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서울:혜안, 2001).
· 정광호,「日帝의 宗教政策과 植民地 佛教」,『한국사학』3(성남:정신문화연구원, 1980).
· 정광호,『한일불교관계사연구』(인천:인하대출판부, 1994. 3).
· 정광호,『일본 침략시기의 한·일 불교관계사』서울:아름다운 세상, 2001. 3).
· 최연식,「특집 프롤로그」,『불교평론』28·29(서울:현대불교신문사, 2006, 12).
· 한동민,『'寺刹令'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한보광,「백용성 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대각사상』 제5집(서울:대

각사상연구회, 2002).
· 한석희,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東京:未來社, 1988).
·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京城:불교서관, 1913)
· 허우성, 「내셔널리즘의 감소를 위한 조건」, 일본사상사학회, 『일본사상』 제13호(서울: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7. 12).

National Consciousness of Modern Korean Buddhism

Kim, Soon-seok
Advancement Center for Korean Studies

This paper divides into two periods the process of raising national consciousness in modern Korean Buddhism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The Period of Admission was the time when the nation's Buddhist circles began to develop national consciousness in contact with Western civilization and monks dispatched from Japan and with the help of enlightened Korean monks who visited Japan. The depth of this self-awareness, however, was quite shallow. The Period of Formation was the time when such national consciousness came closer to maturity, though it seems that the nation's Buddhists were deceived by the Japanese counterparts, who showed Koreans deceptive kindness and secretly espoused Japan's cunning plan to invade the nation. The spread of national consciousness in this Period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nationalist movements occurred among Korean Buddhists, with the prime example of the "establishment of *Linchi tsung*."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Korean Buddhists manifested itself aroun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 nationwide protes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Korean Buddhist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ich was issued in Shanghai in 1919, strongly denounced the Japanese occupation. In prison, Han Yong-un wrote the "Thoughts on Korean Independence," pointing out that the Japanese aggression goes against the principles of morality and justice. He declared in the article that an independent Korea is not just divine providence, but a prerequisite for world peace. That is, his declaration was aimed at world peace beyond the confines of nationalism. The importance of a people is often overshadowed by the cause of world peace. However, a people can be recognized when they achieve both autonomy and harmony. In Buddhists' view, therefore, nationalism is an obstacle that should be overcome.

Key Word

National consciousness, Temple Act, Han Yong-un, Korean Buddhist Theism, March 1st Movement, Korean Buddhist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oughts on Korean Independence

근대 한국불교의 형이상학 수용과 진여연기론의 역할

김영진
인하대학교

Ⅰ. 서론
Ⅱ. 불교철학의 출현과 세계근원에 대한 관심
Ⅲ. 형이상학적 세계인식과 절대진리의 추구
  1. '현상과 실재'라는 낯선 형식
  2. 진리주관과 진리객관의 우주론
Ⅳ. 진여연기론의 등장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1. 뢰야연기론과 진여연기론의 차이
  2. 절대평등과 전체성
Ⅴ. 결론